

아시아계 미국이민은 성공한 소수민족인가?*

최 협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아시아계 미국이민은 흔히 성공적으로 미국사회에 적응한 소수민족으로 평가되어왔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평균가계수입을 꼽았다. 그러나 아시아계 미국이민을 성공적 소수민족으로 간주하는 담론은 주로 미국의 언론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사회과학자들 사이에는 이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과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비교 검토하고, 그것을 아시아계 이민집단이 1960년대의 이민법 개정과 70년대 동남아로부터의 난민을 다수 받아들임으로 해서 대단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모해왔다는 사실과 연계시킴으로서 기존의 논의에 대한 현실적,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이민을 성공한 집단으로 보는 담론이 미국사회에서 수많은 소수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는데 이용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담론이 갖는 사회, 정치적 함의를 검토했다.

◆ 주제어: 아시아계 미국인, 모범적 소수민족, 아메리칸 드림, 적응과 차별

1. 들어가는 말

아시아계 미국이민을 미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소수민족으로 간주하는 담론은 미국사회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특히 보수적인 논객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꾸준히 그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에도 크게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낮은 일탈을 보인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며, 열심히 노력하여 학교교육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일 뿐만이 아니라 평균가계수입 역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성공한’ 소수민족집단으로 간주되는데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Asian-Americans)은 미국의 유색인종집단 중에서 유일하게 ‘모범적 소수민족’(model minority) 또는 ‘성공적 소수민족’(successful minority)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둘러싼 이러한 담론의 형성에는 신문, 잡지, 방송과 같은 언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¹⁾

* 본 논문은 1999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1) 이는 미국의 언론이 역사적으로 아시아계 이민집단이 겪어 온 심각한 현실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아시아계 미국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글들은 1950년대에 처음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²⁾ 예를 들면 1955년 4월 30일자 미국의 유력지 중 하나인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는 중국계 미국인 가정에서의 훌륭한 가정교육이 낮은 사회적 일탈로 나타나고있다는 기사를 크게 취급했다. 또한 1957년 뉴욕타임스 매거진(New York Times Magazine)에서도 중국계 미국인의 가족이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는 모범을 보여준다고 치켜세우는 글을 실었다. 1960년대에는 1966년 12월 26일자 유에스 뉴스(US News)에서 중국계 미국인을 성공한 소수민족으로 높게 평가하는 기사를 3페이지에 걸쳐 게재하였는데 이 글은 그 후 아시아계 미국인을 성공적 집단으로 묘사하는 다른 글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고전이 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신화는 미국 언론이 즐겨 다루는 주제로 남았다. 1971년 6월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지는 아시아계 미국인들(Asian-Americans)을 성공적으로 미국사회에 적응한 소수민족으로 다루는 특집 기사를 냈다. 뉴스위크지는 1982년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가계수입이 미국평균보다 많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며 아시아계 미국인을 성공한 모범적 소수민족으로 소개하는 특집을 다시 게재하였다. 1985년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지는 ‘급부상하는 소수민족’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성공담을 다루었다. 1986년도 8월 3일자 뉴욕타임스지(New York Times)는 교육문제를 다룬 증보판을 내면서 아시아계는 인구의 2.1%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소수민족이지만 미국의 일류대학을 마치 큰 파도처럼 휩쓸고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 1985년 통계를 보면 하버드대학 신입생의 11%와 MIT 신입생의 21%, 그리고 몇 개의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는 25% 또는 그 이상의 신입생이 아시아계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적 적응을 강조하는 미국 언론의 전통은 2000년대에도 명맥을 유지하였는바, 예컨대, 2002년 2월 27일자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는 커버스토리를 통해 지난 20년 간 미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

1992: 182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서 별도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1950년대 이후 아시아계 성공을 다룬 기사들 중 대표적인 사례를 위의 본문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Why no Chinese-American delinquents? May be it’s traditional respects for parents.”(*Saturday Evening Post* 227:12, April 30, 1955.); “Chinatown offers us a lesson.”(McIntyre, W.A., *New York Times Magazine* 49, October 6, 1957.); “Success story of one minority group in U. S.”(*U.S. News* 61: 73-76, December 26, 1966.); “Success story: Outwhiting the whites.”(*Newsweek*, June 21, 1971.); “Asian Americans: Model minority.”(*Newsweek*, December 6, 1982); “Asian-Americans: The Soaring Minority.”(Dillin, J.,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October, 1985.); “Why Asians are going to the head of the class.”(Butterfield, *Fox New York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18, August 3, 1986.); “Asian entrepreneurs emerge as leaders.”(*USA Today*, February 27, 2002.)

데 아시아계의 경제적 성장이 눈부시다며 이들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가 소유한 회사는 20년 전부터 매년 평균 17%씩 늘어났는데 이는 미국 전체 회사 증가율의 2배에 해당한다. 아시아계 회사의 연평균 수입은 33만 6200달러로 히스패닉(15만 5200달러)과 흑인(8만 6500달러)의 그것을 압도한다. 아시아계는 첨단산업에의 진출도 활발하여 실리콘밸리에서 최근 몇 년 새 새로 설립된 회사 가운데 25%가량이 아시아인이 세운 것이라 한다. 아시아계의 부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은 그 제목 밑에 다음과 같은 부제를 달고있다: ‘아시아계의 커져 가는 영향력과 富는 소수민족들 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긴장을 야기 시키고 있다’(Their rising clout and wealth create tension as balance of power shifts among minorities.). 주로 언론을 통하여 형성된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담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제는 대체로 아시아계 집단의 강력한 가족 및 공동체적 유대, 건전한 직업윤리, 높은 학업성취도, 낮은 범죄율, 그리고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 등이 꼽힌다. 그런데 언론에서 소개되는 통계 등의 자료는 심층적 분석이 결여된 극히 피상적인 인용이나 소개에 그쳐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성공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고 아시아계 미국인 당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러한 평가가 과연 아시아계 미국인집단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냐는 데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론에 의하여 형성된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 담론을 미국의 학계에서 그 동안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비판했는가를 살펴본 뒤 이러한 논의가 갖는 사회, 정치적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II. 성공적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을 성공한 모범집단으로 명명한 최초의 학자는 윌리엄 피터슨(William Peterson)이라는 사회학자였다. 그는 1966년 1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일본계미국인의 성공 이야기”(Success story: Japanese American style)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으면서 ‘모범적 소수민족’(model minorit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피터슨은 이 글에서 일본계 이민은 가족의 중시 및 바람직한 노동윤리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문화적 전통 때문에 미국사회에서의 차별을 딛고 일어서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민족’(problem minority)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학문적 결과물로 다시 정리되어 발표된 바 있다(Peterson, 1971). 아시아계의 성공담론을 학문적 연구에 연계시킨 학자로는 피터슨 외에도 하야가와(S. I. Hayakawa, 1979), 소웰(Thomas Sowel,

1978, 1981) 등이 있는데 특히 소웰은 <표 1>에 제시된 통계자료 등에 주목하고 일본계와 중국계 미국인의 성공적 적응을 유태인의 그것에 비유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을 긍정하였다. 소웰이 인용한 이 자료는 1970년 미국 인구조사통계에서 추출한 것으로 일본계와 중국계의 가계수입이 주요 백인그룹을 앞서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이는 당시에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표 1> 민족집단 간의 가계수입 지표 (미국평균 = 100)

유태인	일본인	중국인	이탈리아인	독일인	앵글로색슨	필리핀인	멕시코인	흑인
172	132	112	112	107	107	99	76	62

자료: Thomas Sowell(1981: 5)의 자료를 일부 편집했음.

이상과 같은 초기의 연구이래 아시아계 미국인을 미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집단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주로 아시아계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가계수입에 관한 통계자료가 이용되었다. 이때 인용되는 자료는 아시아계 이민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취급하는 통계가 주로 인용되는데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자료에서 교육과 소득수준의 인종집단 간 비교는 <표 2> 및 <표 3>과 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웰의 1970년 자료에서는 일본, 중국, 필리핀을 따로 떼어 살펴본 것이었는데, 1990년대 이후 자료에서는 아시아계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집단 간 비교를 했을 때에도 교육과 소득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아시아계 이민이 전체적으로 성공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표 2> 4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은 비율의 인종간 비교

년도	전체	백인	흑인	아시아계 (%)
1960	7.7	8.1	3.1	(NA)
1980	16.2	17.1	8.4	(NA)
1990	21.3	22.0	11.3	39.9
1999	25.2	25.9	15.4	42.4

주1: (NA)는 Not Available(자료 없음).

자료: <http://www.census.gov/statab/freq/00s0249.txt>

<표 3> 가계수입의 인종간 비교 (1998년, 1999년도/단위: 달러)

년도	전체	백인 (히스패닉제외)	흑인	아시아 /태평양계	히스패닉
1998	39,744	43,376	25,911	47,667	28,956
1999	40,816	44,366	27,910	51,205	30,735

주1: 가계수입은 Median household income.

자료: <http://www.census.gov/hhes/income/income99/99tablea.html>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계의 평균가계수입은 분명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백인집단의 평균가계수입보다도 높다. 이는 아시아계의 학력수준이 타 집단들 보다 높고, 특히 1965년 미국 이민법이 크게 바뀌던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진 한국이나 인도 등지로부터의 이민은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의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시아계 이민집단의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가계수입을 가능케 했을 것이라고 흔히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시아계 이민집단의 거주지역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2000년도 미국인구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미국인(즉 이민 1세대)의 무려 45%가 로스앤젤리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3개 대도시에서 몰려있을 정도로 미국의 아시아계 이민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아시아계 전체 인구 중 51%가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하와이주에 거주하고 있다(U.S. Census Bureau, 2002 참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농촌보다는 도시 거주민의 평균수입이 높고, 아시아계가 집중되어있는 상기의 3개주는 미국에서도 주민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주들이라는 사실은 아시아계의 평균가계수입이 미국 전체인구의 평균을 상회하게 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계 전체의 평균가계수입이 미국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아시아계 일부집단의 높은 소득수준과, 아시아계 인구의 편중된 지역적 분포와 같은 몇 가지 인구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계 이민집단이 갖는 다양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III. 성공의 척도와 아시아계 미국인의 범주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먼저 ‘성공’의 기준과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집단범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과연 아시아계 미국인집단은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취급할 수 있는 동질적 집단이며, 또한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어느 위치에 이르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미국의 언론과 일부학자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시아계의 성공을 나타내주는 척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평균가계수입을 꼽았는데, 학력과 소득의 요인을 성공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성공을 위한 주요 사회, 문화적 자본임에 틀림이 없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은 가장 정확한 경제적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담론을 지지하는 언론과 일부학자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교육수준과 가계평균소득이 미국전체인구의 평균보다 높고, 특히 백인집단의 그것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성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아시아계의 성공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는 접근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비유색 인종집단으로서 성공적 소수민족으로 간주되는 유대인의 경우에는 높은 소득과 학력이외에도 적은 숫자(전체 인구의 2.5%)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집단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아시아계와 다르다. 예컨대, 유대계는 미국의 모든 인종 및 종족집단 중 선거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이름이 나있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큰 주(뉴욕, 캘리포니아)나 대도시(뉴욕)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숫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 하다(Feagin, 1984: 149). 또한 유대계는 언론계와 영화산업을 장악하고, 주요대학의 교수직 진출도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가(political activists)의 15-20%가량이 유대계라는 사실(Feagin, 1984: 15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정계 진출도 활발하여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는 재무, 국방, 국무와 같은 핵심요직을 유대계가 차지했고, 같은 기간동안에 10명의 상원의원과 2명의 대법관을 배출했다. 이에 비하면 아시아계의 정치적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아직도 미국의 주류사회(the 'core' of American society)에 진입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아시아계 미국인을 성공적으로 적응한 집단으로 보는 기존의 담론은 학력과 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불완전한 성공담론인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성공담론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학력과 소득을 내세운 기존의 논의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이 다음 절에서 밝히려 한다.

또 하나 더 지적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시아계의 집단범주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아시아계 성공담론에서는 아시아계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처럼 취급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계 미국이민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는 27개의 서로 다른 국가가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미국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범주인 아시아-태평양 제도인(諸島人)(Asian-Pacific islanders)은 아시아 이외에, 하와이원주민과 사모아, 괌, 통가 섬으로부터의 이민 등을 포함한다.

1990년도 미국 인구조사결과를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숫자는 6.9백만 명으로서 이는 1980년도의 인구보다 99%가 늘어난 숫자인바, 집단별 구성비는 다음과 같았다.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집단은 중국인으로 아시아계인구의 23.8%를 점하며, 그 다음이 필리핀인으로 20.4%, 일본인 12.3%, 인도인 11.8%, 그리고 한국인이 11.6%로 나타나고 있다. 10% 이하인 집단은 베트남인이 8.9%, 라오스인이 2.2%, 캄보디아인이 2.1%, 타일랜드인이 1.3%, 몽족이 1.3%, 그리고 기타의 아시아인들이 4.4%이다. 2000년도 인구조사는 인종구분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에 1990년도의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 즉 2000년도 인구조사에서는 순수 아시아계와, 아시아계와 다른 인종과의 혼혈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행했다. 그 결과 순수 아시아계의 인구는 10,242,998명(미국 전체 인구의 3.6%), 그리고 다른 인종과의 혼혈은 1,655,830명으로서 이 둘을 합하면 11,898,828명(전체인구의 4.2%)으로 나타났다. 1990년도의 인구가 약 6.9백만 명이었으므로 10년 사이에 아시아계 인구는 어느 범주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약 3.3백만 명에서 약 5백만 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는 대략 48%에서 72%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미국전체인구의 증가율이 13%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시아계 집단의 인구증가는 미국 내 소수민족 중 히스패닉계와 함께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집단이 된다.

이민을 온 시기도 각각 달라 중국인과 일본인의 경우는 최초의 이민이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진 반면 한국인과 인도인은 대체로 1965년 이민법이 바뀌어진 이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중심세력이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족 등은 197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제정된 난민법(The IndoChina Migration and Refugee Assistance Act of 1975; the Immigration Act of 1976)의 적용을 받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각 집단의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에 잘 나타난다. 즉 1990년도의 인구조사자료를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 중 66%가 해외출생자인데, 특히 베트남(79.9%), 라오스(79.4%), 캄보디아(79.1%)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 외에도 타일랜드(75.5%), 인도(75.4%), 한국(72.7%), 중국(69.3%), 몽족(65.2%), 필리핀(64.4%) 집단도 해외출생자의 비율이 높는데, 일본의 경우는 32.4%로 해외출생자의 비율이 예외적으로 가장 낮다. 일본계와 같이 이민의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중국인의 경우 해외출생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중국계의 이민은 일본과는 달리 홍콩, 대만, 중국본토 등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 계속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은 또한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하여 젊은 인구집단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1990년도 인구조사 시 미국전체인구의 중위치 연령(median age)은 33세이었는데 아시아계는 30세로 세살이 낮았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량의 이민이 이루어진 몽족(12.5세), 캄보디아(19.4세), 라오스(20.4세), 베트남(25.2세) 집단의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는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인구학적 특성은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

이 대단히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그러한 인구학적 통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IV. 미완의 성공: 아시아계 이민집단 간의 차이

인구통계자료의 비교를 통해 보면 아시아계의 교육수준과 평균가계수입은 분명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아시아계가 곧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Kitano 1995; Walker-Moffat 1995; Lee 1996). 예컨대, 앞서 미국의 인구통계에서 살펴 본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가계수입은 백인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표 3> 참조), 그것을 개인 당 평균수입으로 바꾸면 백인보다 낮아진다(<표 4> 참조).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가구 당 노동에 참여하고있는 숫자가 백인보다 많다는 것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실질 소득은 백인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시아계의 백인보다 높은 평균적 학력수준을 고려한다면 1인당 평균소득이 보여주는 수치는 결코 '성공적 적응'의 증거라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표 4> 1인당 평균소득의 인종간 비교 (1998, 1999년/단위: 달러)

년도	전체	백인 (히스패닉제외)	흑인	아시아 /태평양계	히스패닉
1998	20,564	23,459	13,243	19,122	11,687
1999	21,181	24,109	14,397	21,134	11,621

자료: <http://www.census.gov/hhes/income/income99/99tablea.html>

분석의 대상을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1970~80년대이래 성공적으로 적응했다고 말해지는 집단으로 바뀌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비교적 최근의 이민집단이면서 빠른 시일 내에 평균가계수입이 미국의 평균을 상회하게 된 집단 중의 하나인 한국계 이민의 경우 가계수입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성공'을 설명하는데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즉 아시아계의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가계수입이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1970~80년대에 걸쳐 한인사회를 연구한 허원무와 김광정(Hurh and Kim, 1983)에 의하면 1965년 이후에 본격화된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은 대체로 중산층 및 높은 학력배경을 갖는 집단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수입은 그들이 대도시에서 가족단위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지역에 따라 미국평균의 2.5배 내지 5배), 긴 노동시간(주당 평균 58시간 이상), 그리고 기혼여성의

높은 취업율(68%)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한국계이민의 경제활동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특성은 그들이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일차적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인 셈이다.

<표 5> 아시아계 집단의 학력수준 비교: 1990년도 (25세 이상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학 졸업 이상	
	남	여	남	여
미국인구 전체	75.7	74.8	23.3	17.6
아시아계 전체	81.7	73.9	43.2	32.7
중국인	77.2	70.2	46.7	35.0
필리핀인	84.2	81.48	36.2	41.6
일본인	89.9	85.6	42.6	28.2
인도인	89.4	79.0	65.7	48.7
한국인	89.1	74.1	46.9	25.9
베트남인	68.5	53.3	22.3	12.2
캄보디아인	46.2	25.3	8.6	3.2
몽족	44.1	19.0	7.0	3.0
라오스인	49.4	29.8	7.0	3.5
타일랜드인	88.6	66.2	47.7	24.9
기타 아시아인	85.9	78.7	47.5	34.2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Bureau of the Census(1993: 4).

이에 더하여 한가지 더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아시아계 집단 중에는 경제적으로 흑인집단 보다도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집단이 많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계의 성공담론이 이미 굳게 자리잡았던 1990년도의 인구조사자료를 보면 몽족의 1인당 평균소득이 1989년도의 미화로 2,692달러에 불과했으며, 캄보디아인은 5,120달러, 라오스인은 5,597달러였다. 이 당시 아시아계 중에서 가장 높은 1인당 평균소득을 자랑하던 일본계 미국인의 수입은 19,373달러에 달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아시아계 미국인집단 내의 집단 간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학력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한바 <표 5>는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소수민족으로 간주되는 아시아계 집단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학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표 6> 아시아계의 빈곤층 비율

아시아계 집단	%
아시아계 전체	81.7
몽족	70.2
캄보디아인	41.6
라오스인	89.9
베트남인	89.4
한국인	89.1
중국인	68.5
타일랜드인	46.2
인도인	44.1
일본인	49.4
필리핀인	6.4
기타 아시아인	18.2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Bureau of the Census(1993: 7).

교육수준 외에도 아시아계의 경제적 상황을 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아시아계의 성공 담론을 거부하는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미 정부가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인구의 비율을 인종별로 비교한 1999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백인(여기서는 히스패닉을 제외한 백인종을 말함) 인구의 7.7%가, 흑인은 23.6%, 히스패닉은 22.8%, 그리고 아시아계(1999년도 미 정부 통계자료에서는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로부터의 이민을 한 범주로 묶어 취급했음)는 10.7%가 빈곤층으로 분류되었다(Dalaker and Proctor, 2000). 비록 아시아계 전체의 빈곤율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와 같은 여타 소수민족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백인집단 보다는 높고, 아시아계 이민집단을 다시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표 6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계 (태평양계는 제외) 집단 중 필리핀, 일본, 인도, 타일랜드, 한국, 중국계에 비하여 동남아로부터의 이민집단에서는 빈곤율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보다 현저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대학이상 학력자 중 1만 불 이상 소득자 비율 (%) (1970년도)

		백인	흑인	중국인
대학졸업자	남 자	59.6	35.3	38.3
	여 자	10.2	11.2	9.3
대학원 이상	남 성	67.1	53.0	50.9
	여 성	27.7	34.2	13.3

자료: Cabezas, Arnardo Y. and Pauline L. Fong(1976).

<http://www.itp.berkeley.edu/~asam12/model-minority/bibliography.html>

동남아계 이민집단의 경제적 적응이 어려운 데에는 그들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도 상관이 있을 것이기에 동남아계의 어려운 상황을 다만 그들의 낮은 교육수준 때문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가계 수입이 오래 전부터 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의 경우에도 아시아계의 교육수준과 소득간의 상관관계는 단순하지가 않음을 말해주는 자료가 존재한다. 즉 교육수준을 통제하여 중국인과 여타집단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아시아계는 교육수준에 비하여 다른 인종집단보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음을 강력히 시사해 준다.

<표 7>을 보면 대학을 졸업한 중국계 미국인 중 1만불 이상 고소득을 올린 비율은 백인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를 중심으로 비교를 하면 중국계 여성은 흑인 여성보다도 더욱 열등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³⁾ 이러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말해준다. 첫째는, 인구통계에 나타난 아시아계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평균가계수입은 아시아계 이민의 성공적 적응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부정확한 자료이며, 동시에 아시아계를 향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나타내주지 못한다. 둘째는, 아시아계 이민집단 중 일부는 교육수준 및 경제적 적응 측면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동질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들의 현실을 간과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 아시아계를 일반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치부하는 부정확한 인식은 자칫 아시아계에 할당되어야 할 정부의 보조나 지원프로그램을 감소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Lieutenant Commander James G. Foggo, III(1993)에 따르면 25세 및 대졸학력 이상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이 라오스 출신은 67.2%, 몽족(Hmong) 출신은 65.5%, 캄보디아 출신은 46.9%, 베트남 출신은 33.5%,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은 15.2%에 달한다고 한다.

V. 아시아계 성공 담론의 사회, 정치적 배경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시아계 이민집단을 미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모범집단으로 단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왜 아시아계의 성공담론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하나의 고정관념처럼 튼튼히 자리를 잡아갔던 것일까? 이제 이 절에서는 아시아계 성공의 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미국의 역사를 통하여 특정 이민집단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평가나 차별은 미국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백인집단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상황이나 경제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예를 들면 19세기 미국경제의 필요 때문에 받아들였던 중국이민이 점차 일부 영역에서 미국노동자계급의 경쟁상대로 부상하자 곧 바로 중국이민에 대한 배척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배척운동의 전개과정에서는 대중의 정서에 편승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Miller, 1969). 그렇다면 중국계와 일본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장하기 시작한 1950-80년대 사이 미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경제는, 간헐적인 경제불황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1980년대까지 꾸준히 여건이 호전되었다(Muller, 1997).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이제 아시아인들은 더 이상 백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경쟁자로 간주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위기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경제적 호황에서 소외된 흑인들의 불만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대신 자리잡았다. 미국건국 이전부터 희생을 감수해온 흑인집단은 2차 대전 이후 점차로 집단적 시위와 적극적 정치참여를 통하여 민권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소수민족우대법(Affirmative Action)의 제정 요구와 같은 권리 찾기에 적극 나섰다.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백인들은 점차 힘을 더해 가는 흑인들의 민권운동에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1970년을 전후하여 발생하기 시작한 여러 도시에서의 흑인폭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었다.⁴⁾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흑인집단과는 대조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근면 성실한 생활태도를 유지하며 조용히 미국사회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스컴의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적 아시아계 이민의 신화는 자유와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는 소수민족도 스스로 노력하면 중산층의 꿈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계이민의 성공은 결국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를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됨으로 해서 흑인들의 실패는 제도나 사

4) 1960년대에 흑인들에 의해 활발히 전개된 민권운동은 점차 블랙 팬터스(Black Panthers)나 블랙 무슬렘(Black Muslims, or The Nations of Islam)과 같은 과격단체들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1967년부터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흑인 폭동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백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회구조적 왜곡에 기인하기보다는 흑인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한 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신화는 불평등한 사회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은폐하여 백인중심의 미국사회를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의 성격을 갖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것은 미국의 백인 주류집단이 아시아계를 그들의 입장에서 타자화 해 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계의 성공 담론이 갖는 이와 같은 측면을 재빨리 이용한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예를 들면 1971년 당시 닉슨(Richard Nixon)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패트릭 뷰커넨(Patrick Buchanan)⁵⁾은 흑인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삭감하려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시아계의 성취도를 인용하는 메모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Feagin and Feagin, 1996: 242). 1984년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레이건(Ronald Reagan)은 대기업과 보수세력, 그리고 백인중심의 미국 주류사회의 표를 의식하여 주로 빈민층과 소수민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는데 아시아계의 성공사례를 십분 활용하였다. 그때 레이건이 인용한 통계는 1980년 통계국의 자료로서 아시아계 집단의 연평균가계수입(\$42,250)이 미국 평균(\$36,920)을 상회한다는 것이었다. 즉 레이건은 이러한 통계를 소수민족이 스스로 노력하면 자신들의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용했던 것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시(George W. Bush)는 차별을 받은 소수민족 중에는 아시아계와 같이 높은 학업성취도와 경제적 상승이동을 보여주는 소수민족의 예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여타의 모든 소수민족도 스스로의 기대치를 낮추어 잡을 것이 아니라 아시아계처럼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국 아시아계 이민의 성공신화는 미국의 주류사회가 소수민족우대법(Affirmative Action)의 점진적 철폐와 소수민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예산의 삭감과 같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데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VI. 나가는 말

성공적인 아시아계 이민의 이미지는 미국의 주류사회가 만들어낸 일종의 신화(myth)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미지는 미국의 국내외 사정이 바뀌는 것에 맞추어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5) Buchanan은 1991년 12월 미국의 극우 보수세력을 대변하고자 '전통적 가치의 수호', '작은 정부의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공화당대통령후보 지명전에 뛰어들었다가 George Bush에 패했다. 그는 1993년부터 The American Cause라는 보수적 재단을 이끌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이 주류 백인집단에게 경제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때에는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극성을 부렸고, 미국의 경제가 상승곡선을 그릴 때에는 비교적 관대한 평가가 고개를 들었다. 1920년대 대공황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미국의 경제상황은 당시 아시아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켰다.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the Chinese Exclusion Act)에서 1907년의 ‘동양인 학교법’(Oriental School Act), 1916년의 ‘외국인 토지법’(Alien Land Law),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수용에 이르기까지⁶⁾ 각종 제도적 장치에 반영된 미국주류사회의 아시아계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아시아계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는데 이는 미국의 민권운동이 활발해진 것 이외에 특히 전후 미국의 경제가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최초의 아시아인이 미국이민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지난 120여 년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의 다수집단으로부터 처음에는 도덕을 모르는 야만인으로, 그 다음은 색다른 문화를 가진 인종으로,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성공적인 모범집단으로 묘사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시아계 이민의 급격한 증가와 미국경제가 안고있는 불안요인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오고 있는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20세기를 넘기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아시아계의 이민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는 저술의 증가, 그리고 이민을 반대하는 여론의 형성이 좋은 보기이다 (Brimelow, 1995를 참조할 것). 이는 아시아계 이민의 성공 담론이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정이라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점차 아시아계 이민에 대한 질시와 배척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더하고 있음을 뜻한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신화가 확산된 것과 병행하여,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는 1980년대 이후 부쩍 증가하고 있다. 1982년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Detroit)시의 한 술집에서 중국계 미국인 빈센트 친(Vincent Chin)이 일본 자동차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업체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생각한 백인 청년들에게 맞아죽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미국청년들에게 아시아계 미국인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으며, 동시에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모두 다를 바 없는 동양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하버드와 같은 동부의 명문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들에서 아시아계 학생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입학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워싱턴시에서는 흑인지역에서 한국인 가게를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로스앤젤리스에서는 ‘일본인은 돌아가라’는 낙서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미 90년대에 중반

6) 1882년의 the Chinese Exclusion Act는 중국인 이민을 금지하는 법이고, 1907년의 Oriental School Act는 백인과 동양 어린이들의 학교를 분리시키는 법안이며, 1916년의 Alien Land Law는 아시아계의 토지소유를 금하는 법이다. 2차 대전 때는 독일계 미국인과는 달리 일본계 미국인만을 집단캠프에 수용하는 다분히 인종주의적인 정책을 폈다.

미국의 민권위원회(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Moore, 1998).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특히 80년대 이후 갑작스레 증가한 이유로 웡(Wong, 1991)은 아시아계 이민의 폭발적 증가가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 일본이 미국의 경제적 경쟁자로 부각되었고,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의 정치적 경쟁자로 급부상함으로써 미국의 주류사회가 일종의 위기의식을 갖게된 점을 들었고, 그 외에도 미국의 언론매체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아시아계 이민의 성공에 대한 타 인종의 질투심리,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같은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 등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아시아계 미국인은 인종적 소수민족(racial minority)이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집단이며, 따라서 언제든지 미국사회에서 다수와 주류세력으로 균립하는 백인집단으로부터 구별되고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도 아시아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 공공부문, 정치권 등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진출하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며,⁷⁾ 그러므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칭찬이나 비난은 모두 다수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달리 나타날 것이다. 아시아인은 몇 세대를 미국에서 살았든 ‘우리’가 아닌 ‘저들’(others)로 간주되고, 토착민(native)으로 보다는 ‘내부의 외국인’(alien)으로 객체화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최협, 1997: 24)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신화는 그저 다수집단이 만들어 낸 신화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집단이 갖는 특성 중 어느 일면만을 강조하는 담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류일 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소수민족 집단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것은 자칫 다른 집단들로부터의 오해와 상호간의 분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기능을 갖는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최 협, 1997. 「미국의 이민정책과 아시아계 미국인」. 『현대사회과학연구』 제8권.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30.
- Brimelow, Peter. 1995. *Alien Nation: Common Sense about America's Immigration Disaster*. New York: Random House.
- Cabezas, Amardo Y. and Pauline L. Fong. 1976. *Employment Status of Asian-Pacific Women*, Asian American Service Institute for Assistance to Neighborhoods. August.

7) 하나의 상징적 예를 들면, 소수민족 사회진출의 보이지 않는 장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의회가 구성한 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이 발표한 1995년의 보고서에 의하면 Fortune지가 선정한 미국의 5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 중 무려 97%가 백인이었다.

- Dalaker, Joseph and Bernadette D. Proctor. 2000. *Current Population Reports, 2000*. U. S. Census Bureau. pp. 60-210.
- Feagin, Joe R. 1984. *Race and Ethnic Relation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_____ and Clairece B. Feagin, 1996. *Racial and Ethnic Relations*. 5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yakawa, S.I. 1979. *Through the Communication Barrier*. New York: Harper & Row.
- Hurh, Won Moo and Kim, Kwang Jung. 1983.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Teaneck, New Jersey: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 Kitano, Harry H. 1995. *Asian Americans: Emerging Minorities*. 2n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 Lee, S. J. 1996. *Unravelling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 Listening to Asian American Yout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Lieutenant Commander James G. Foggo, III. 1993. 5. "Review of data on Asian-Americans." *U.S. Navy, Defense Equal Opportunity Management Institute*.
- Miller, Stuart C. 1969. *The Unwelcome Immigrant: The American Image of the Chinese 1785-1882*.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ore, Michael. 1998. "Scapegoats again: 'Hate crimes' against Asian-Americans on the rise." *The Progressive* February, 25.
- Muller, Thomas. 1997. "Nativism in the mid-1990s: Why now?" In Juan F. Perea, ed. *Immigrants Out!: The New Nativism and the Anti-Immigrant Impulse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05-118.
- Peterson, William. 1971. *Japanese Americans*. New York: Random House.
- Sowell, Thomas, ed. 1978. *Essays and Data on American Ethnic Group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_____. 1981. *Ethnic America: A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992. "Civil rights issues facing Asian Americans in the 1990s." p. 182.
- U.S. Census Bureau. 2002. *Census 2000 Brief: The Asian Population*. February.
-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Bureau of the Census. 1993. "We the Americans: Asians." September.
- Walker-Moffat, Wendy. 1995. *The Other Side of the Asian American Success Stor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Wong, Morrison. 1991. "Rise in hate crime against Asians in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ugust.

Asian-Americans as a Model Minority: Myth or Reality?

Choi Hyup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the Asian-Americans have long been considered as a successful model minority who are well adjusted to American society. However, there exist some disagreement among the scholars as to whether the Asian-Americans could be labeled as a successful model minority.

In this paper, the two contrasting views concerning the adjustment patterns of the Asian-Americans were examined in relation with the emerging socio-political climates of the U. S. society. It was emphasized that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Asian-Americans requires some consideration of intra-group variations due to the fact that Asian-Americans have been socially mobile, and there has been a continuous influx of recent immigrants who are heterogeneous. Unlike the past studies which tended to submerge intra-group differences, the Asian-Americans were treated as a diverse group, thereby paying much attention to those Asian-Americans whom we may label them as unsuccessful groups. After a close examination of the relevant literature and census data, it was concluded that the 'Successful Minority' thesis is not reflecting the realities of Asian-Americans adequately. Using averages to characterize population is misleading. Therefore, the model minority thesis can be viewed as a construction of the myth by the dominant group, of which function is to silence the multiple voices of Asian-Americans and other racial minority groups.